

조선시대 능참봉직(陵參奉職)의 조경사적 의의

신현실* · 이원호**

*북경 어언(語言)대학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A Study on the Landscape Architecture Historical Significance of Reung Chambong in the Joseon Dynasty

Shin, Hyun-Sil* · Lee, Won-Ho**

*Beijing Language & Culture University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ABSTRACT

This study has a purpose of base study for ascertaining landscape architect's role of Reung Chambong through analyzing old literature include Kyungkukdae-Jeon, Sokdae-Jeon, Daejeonhoitong, Joseonwangjo-Sillok, Eugye, Reung-Ji, Ilsung-Rok, Reung Chambong's diary. Reung Chambong was a government post in the Joseon dynasty, who managed Royal Tombs of Joseon Dynasty that has promoted as a World Heritage of UNESCO. the conclusions drawn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Reung Chambong was comprised of two Jong 9 pum Chanmbong members. a position of Reung Chambong was a Eumjik appointed Saengwon, Jinsa, Yuhak completed Sammang. the standards of appointment is a experienced person and too young. it became means for accessing a government post because it had a symbolic representation of Royal Tombs guardian.

Second, The management system of Reung Chambong was approved on the basis of ranking. however, due to geographical reasons, they had much authority and various mission than is possible. for example, construction supervisor of the Reung and Bongsim, manager of the Reungshogun and filling out Reungji. they performed an important role in management of Royal Tombs in the Joseon dynasty.

Third, One of tasks related in landscape architecture, a Bongshim reported Sukmul(stonework), Sacho, Jungja-Gak of Reungsang to Yejo periodically. formational system and method of Bongshim are provided in the Kyungkukdae-Jeon and Sokdae-Jeon detailedly.

Fourth, Tree management and construction supervisor of Reungsang, positions among tasks related in landscape architecture, required basic understanding and management ability of botany, various eye for spatial perception includes civil and architectural projects. also, as a site management of Royal Tombs in the Joseon dynasty, Reung Chambong was empowered tacit authorization and responsibility in mobility preoccupation of vertical relationship with local officials and handling by-product of site. there is a close correspondence with landscape architect of today.

A follow-up research is required to ascertain landscape architect historical values of Royal Tombs in the Joseon dynasty and Reung Chambong's role as a site management of Royal Tombs in the Joseon dynasty through historical seeking and research old literature on Reung Chambong's role related in landscape architect.

Key Words : Green Belt Management, Reungwan, Reung Chambong, Bongshim, Royal Tombs in the Joseon Dynasty

† Corresponding Author : Lee, Won-Ho,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Daejeon 302-834, Korea. Phone : +82-42-610-7622, E-mail : oldgarden@korea.kr

국문초록

본 연구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조선왕릉의 관리를 담당한 관직인 능참봉직을 소재로 하여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각종 의궤(儀軌), 능지(陵誌), 『일성록』, 능참봉 일기 등 관련 고문헌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능참봉의 조정가적 역할을 규명하는 기초연구로 수행되었으며, 요약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능참봉(陵參奉)은 종9품 참봉 2인으로 구성되고 능참봉직은 생원·진사 혹은 유학중에 삼망(三望)을 거쳐 임명이 되는 음직(陰職)으로 임용기준은 ‘연소하지 않고 경륜이 있는 자’를 선발하였으며, 왕릉수호의 상징성으로 인해 관직진출의 수단이 되었다.

둘째, 능참봉의 업무체계는 품계서열을 따랐으나 지리상의 여건 등으로 봉심과 능의 공사감독 등 실제보다 많은 권한과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였으며, 능수호군 관리 및 능지작성 등 조선왕릉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셋째, 능참봉의 조경관련 직무 중 봉심은 능상의 식물이나 사초, 정자각 등을 정기적으로 예찰하여 예조에 보고하는 것이며, 경국대전과 속대전에 봉심의 체계와 방법 등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었다.

넷째, 능참봉의 조경관련 직무 중 수목관리 및 능역공사 감독은 조경식물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관리능력과 건축·토목을 망라한 공간에 대한 다양한 식견이 요구되는 직무로 조선왕릉의 현장관리 실무자로서 지방관과의 수직적인 관계의 유동성 확보와 산림부산물 처리에서 암묵적 권한과 관리 책임이 부여되었으며, 오늘날 조경가의 직무성향과 관련성이 깊다.

능참봉의 조선시대 조경관련 직무에 대해 좀 더 폭넓은 문헌 발굴 및 고증으로 조선시대 능참봉의 조선왕릉 조경관리자로서의 역할과 능참봉과 조선왕릉의 조경사적 가치 규명을 위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주제어 : 녹지관리, 능관, 능참봉, 봉심, 조선왕릉

I. 연구 배경 및 목적

조선왕릉은 조선시대 518여 년 간 동일한 조형원리로 조영되고, 원형이 보존된 조선왕조 최고통치자의 무덤으로 전 세계에서 현존사례로써 유일하다. 2009년에 이르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인정받아 조선왕릉 40기가 연속유산으로서 세계유산(World Heritage)목록에 등재되었다. 왕릉은 수도권과 인접지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며, 그 면적만 해도 64,971,864m²(문화재청, 2008)에 이르고 도시화 과정 속에서 녹지의 축과 개발 위주 도심확장에 방과제 역할을 담당해 왔다.

또한, 2010년에는 조선왕릉의 등재 1주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하회와 양동마을이 역사마을로 세계유산에 추가되어 나라 안팎으로 한국의 역사유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지자체마다 세계유산등재 붐이 일고 있다.

학계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세계유산과 조선왕릉에 관한 관심이 점차 활발해지는 추세이다. 관련 연구동향을 보면 조선왕릉의 입지 및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는 이창환(1998)의 조선시대 능역의 입지와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를 필두로 홍유룡(김흥년 등, 2007), 용건룡(심우경 등, 2007), 태·강릉(박동석 등, 2008), 서오릉(김진태 등, 2009), 의릉(최종희 등, 2010)을 사례로 한 연구가 있어 왔고, 능역 복원에 관해 조운연(2009), 김규연 등(2010)의 공간구

조를 다룬 왕릉 신로·어로의 형식, 그밖에 풍수적 해석(이재영, 2010) 등의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왔다. 조선왕릉의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는 주로 미술분야에 해당하는데, 조선왕릉 연구의 원로격인 은광준(1985)의 식물과 복식연구를 비롯해 신광철(2005), 전나나(2009)의 석인상 연구, 금친교(조송래, 2006)와 왕실 재실(엄지혜, 2008) 연구가 있었고, 조선왕릉의 경관보존 관리분야로는 현상변경 및 경관보존 관리로 최종희(2008), 임병을(2009)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또한 관 주도로 이창환(2008)에 의해 조선왕릉 능제복원 기본계획이 수립된 바 있다. 본 연구와 관련된 조선왕릉의 능참봉에 관해서는 능참봉의 행정업무에 관한 사회학, 제도사 및 경제사적 접근인 김효경(2002), 김경숙(2005) 등의 연구만이 수행되어 왔으며, 조선왕릉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관리자인 능참봉에 대한 조경학적 연구는 현재까지 일천하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글로벌화에 따른 국가브랜드 가치창출에 힘쓰고 있는 이때, 우리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시청각 위주의 멀티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스마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신 기술 및 매체의 활용이 활발하다(김양호, 2011). 그러나 최근 고등학교 국사교육 필수과목 채택 문제 등 자국의 고유문화를 전승할 차세대에 대한 교육기반마저 흔들림으로써 차후에 국제사회에서 문화정체성의 상실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조선왕릉과 같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자국의 문화유산을 매개로 한 학계와 산업계의 다양한 콘텐츠 활용은 국가브랜드화의 도구로 매우 유용할 것이다. 조경분야에서도 다각적 방법론과 소재의

모색이 절실한 상황¹⁾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맥락으로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의 관리를 담당한 관직인 능참봉을 소재로 하여 능참봉에 관한 고문헌 기록을 중심으로 능참봉의 조정가적 역할을 파악하는 기초 단계로 수행되었다. 능참봉에 관한 조정분야의 연구는 시대적 제도를 통해 전통조경 관련 자료를 추출하는데 1차적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의 축적을 통해 조정분야의 역사적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거시적 안목을 포함하고 있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조선왕릉의 제례와 녹지관리를 담당한 국가 하위 직인 능참봉에 대한 조정사적 의의 분석을 위하여 관련 고문헌인 조선왕조실록을 근간으로 능참봉에 관한 기록상의 직위와 임용조건, 관련제도, 조정관련 임무, 주요사건 등을 내용분석을 통해 추적하였고, 이를 통해 능참봉을 통한 조선왕릉 관리상의 조정적 범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능참봉의 능관리 기법, 관리 사례 등 관련내용의 고증을 위하여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회통, 조선왕조실록, 능지, 일성록, 능참봉 일기 등 개인문집류, 관련 선행연구, 고문헌 국역 DB 검색 등을 활용하였다. 능참봉 연구 자료의 조정사적 가치로는 각종 실록과 능지에 능참봉의 업무에 대해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능참봉의 생활이 비교적 자세히 언급된 능참봉의 일기 등이 남아있어 자료 분석이 비교적 용이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능참봉(陵參奉)의 직위와 임용조건

왕릉에 근무하는 능관(陵官)을 능참봉(陵參奉)이라 한다. 원래 참봉(參奉)은 조선시대 여러 관서²⁾에 두었던 중 9품직으로 초기에는 9품관을 두지 않았다가, 1466년(세조 12) 1월 관계개정 때 9품관을 모두 참봉이라 했으며, 제릉(諸陵)·전직(殿直)도 참봉이라고 불렀다. 나중에는 나라에 큰 공을 세웠거나 명문집안의 종손에게는 조상의 제사를 모신다는 이유로 세습참봉이 제수되기도 하였다(원문참조).

“봉화백(奉化伯) 정도전(鄭道傳)에 대하여 공신(功臣)의 칭호를 회복시키고 시호(諡號)도 내려주라고 하면서 해조에서 그 봉사손(奉祀孫)의 이름을 물어서 건원릉 참봉(健元陵參奉)의 자리에 의망(擬望)하여 들이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고종 2권, 2년(1865) 을축/청 동치(同治) 4년 9월 19일(신사) 1번째 기사

다음의 기사와 같이 왕가의 세력을 이용해 관직을 얻는 일도 빈번해졌다.

“효령 대군(孝寧大君)의 사판(嗣版)이 오늘 서울에 들어와 나라에서 내리는 제사를 받는 일이 이내 진행될 것이다. 그 사손(祀孫)이 아직까지 포의(布衣)로 있다는 것은 심히 잘못된 일이니 헌릉 참봉(獻陵參奉)의 자리를 만들고 해조(該曹)에서 그 이름을 알아내어서 의망(擬望)하여 올리도록 하라.” 고종 2권, 2년(1865) 을축/청 동치(同治) 4년 3월 13일(무신) 4번째 기사

또한, 능관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수릉관(守陵官)³⁾이라는 임시직도 있었다.

경국대전에 보면 조선시대의 능관인 능참봉은 종9품 참봉(參奉) 2인으로 구성되었다. 조선시대 관직에서 최하급이며 음직(蔭職)이기 때문에 임용과정에서 인맥이 크게 작용하게 된다. 능참봉직은 생원·진사 혹은 유학 중에 삼망(三望)을 거쳐 임명이 되며 성종실록(1472년)에 “모든 능참봉은 지식이 있는 자로 가려서 차정하고 유고시에 가참봉도 계품을 택하여 택하게 하라”는 기록과 아울러(원문참조)

능참봉을 지식이 있는 자로 가려 제수케 하다. 傳曰: “諸陵參奉, 多以年少不更事者差之, 諸事虛疎, 擇有知識者以授. 且參奉有故, 以無識妄人, 爲假參奉, 甚未便. 自今假參奉亦啓稟擇差.” 成宗 15卷, 3年(1472) 壬辰/명 성화(成化) 8年 2月 23日(庚寅) 5번째 기사

<-경륜이 있는 자를 고르기 위한 고심의 흔적과 능력의 중시가 아래 실록에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능참봉의 임무가 다양한 분야에 능력이 요구됨을 말해 준다(원문참조).

제릉 참봉 최인복의 재능을 시험하여 맞지 않으면 개정토록 하다 丁丑/議政府啓曰: “初授官, 非生員, 進士, 必試才乃除. 今崔仁福, 不試才而授齊陵參奉, 請改正.” 傳曰: “兒子避寓其家, 故命敍用, 政承言是, 其令吏曹試才, 不中則改正.” 成宗 267卷, 23年(1492) 壬子/명 홍치(弘治) 5年 7月 9日(丁丑) 1번째 기사

정리해 보면 능참봉의 임용기준은 ‘연소하지 않고 경륜이 있는 자’를 차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김효경, 2002: 217). 능참봉 임용의 구체적인 연령규정은 확인할 길은 없고 경륜의 수준도 명문화되지 않았으나, 능참봉의 역할은 크게 왕릉의 관리와 제례로 구분되는 바, 이는 유학적 지식과 기술분야의 전문성까지 겸비한 직무능력의 요구를 의미한다. 이것은 동급의 참봉직과는 자격면에서 까다롭다고 할 수 있다(김효경, 2002: 217). 당시 능참봉은 왕릉을 수호하는 상징성과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그 영향으로 과거를 거치지 못한 사족들이 관직 진출을 할 수 있는 초입임(初入任)의 청직(淸職)으로 인식되고 있었다(김경숙, 2005: 109). 능관의 배치규정에 대한 기록으로 1471년 『경국대전(大典)』 권지1 吏典 - 경관직 [각릉전] 종9품 각 참봉 2원씩 배치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고, 1706년(숙종32년)에 와서 1인으로 축소된다. 1725년(영조1년)에는 참봉을 직장(直長,

표 1. 능참봉(능관) 배치규정 (1746년)

구분	각 룡	각 전
운영	참봉은 각 2원으로 하되 그 중 1석은 별관직장이나 영을 수시로 변통하여 문관 또는 읍관으로써 분임한다. (봉사도 또한 중간에 변통하여 차출하되 지금은 협능한다) -덕령 이하의 팔릉에 있어서는 모두 복도인으로써 임용하고 복무기간 30 주월을 만기로 하여 예원전참봉으로 승진 임용한다.	각릉과 같다. -경기전에 있어서는 복무기간 360일을 만기로 하여 경참봉과 변송한다. 선원전에 있어서는 복무기간 9백일을 만기로 하여 경참봉으로 승진 임용한다. · 문소전과 연은전을 모두 지금은 폐지한다.
종 5품	영(令)을 배치한다. (건원릉, 정릉, 현릉, 현릉, 사릉, 경릉, 창릉, 공릉에 각 1원식으로 한다)	영을 배치한다(영희전에 1원으로 한다)
종 7품	직장(直長)을 배치한다. (선릉, 순릉, 정릉, 회릉, 태릉에 각 1원식으로 한다)	-
종 8품	별검(別檢)을 배치한다. (효릉, 강릉, 목릉, 휘릉, 승릉, 명릉, 익릉, 혜릉에 각 1원식으로 한다)	별검을 배치한다. (장령전과 만령전에 각 1원식으로 한다)
종 9품	참봉(參奉)을 배치한다. (덕릉, 안릉, 지릉, 숙릉, 의릉, 순릉, 정릉과 화릉에 각 1원식으로 한다. -건원릉, 정릉, 현릉, 현릉, 사릉, 경릉, 창릉, 공릉, 선릉, 순릉, 정릉, 회릉, 태릉, 효릉, 강릉, 목릉, 휘릉, 승릉, 명릉, 익릉, 혜릉에 각 1원식으로 하고 제릉, 후릉, 영릉, 장릉, 광릉, 온릉, 장릉, 영릉과 의릉에 각 2원식으로 한다)	참봉은 영희전 장령전과 만령전에 각 1원씩 배치하고, 경기전과 선원전에 각 2원씩 배치한다.

종7품)으로 품계를 높이고, 영조12년(1736년)에는 다시 령(令)으로 승급시킨다(김민규, 2009). 능령(陵令)은 대체로 1년을 주기로 교체되었는데, 령을 지낸 인물로 검재 정선은 1753년 9월 16일에 현릉령에 제수되어 1754년 2월까지 재직하였다. 속대전(續大典, 1746년)에 의하면 능 관리자 2명중 1명은 종5품 령(令), 종7품 직장(直長), 종8품 별검(別檢) 등으로 교체하며, 임명할 수 있었다(표 1 참조).

2. 능참봉의 역할

1) 능참봉의 직무체계

능참봉은 품관 관료 중 가장 하위직으로 여타 참봉직과 똑같이 9품의 하위직이지만, 직무상 임금의 능을 모시는 관직으로 그 상징성이 부여되고, 직무체계에 있어서는 품계의 서열(그림 1)을 따랐으나 실제로는 규정보다 훨씬 많은 권한과 임무를 수행하였다. 능참봉은 현장에 배치된 최일선의 실무자로서 제례와 왕릉관리에 있어 암묵적으로 일임된 권한을 가진 직책이었던 것이다.

능에 딸린 사찰인 능사(陵寺)⁴⁾와 지방관과의 관계 또한 지위체계의 고하를 막론하고 비공식적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특히 지방관과의 관계는 직제상 상하관계가 분명하였으나, 능력과 관련해서는 지방관의 통솔을 받는 경우가 드물고 상호협력 관계로 판단된다. 기록에 의하면 능사에서는 나라에 지물을 생산하여 바치는데 관여하였고, 종3품인 부사에게도 거리낌 없이 대응하였으며 고유제때 수령은 현관으로 차출되어 왔고(원문참조), 十八日乙卯 聞本府鄭令 差獻官(頤齋亂藁 권2, 1766년 8월 18일, 623쪽) 제례 시에 물자를 제공받기도 하였다.

능참봉은 항상 능소에 입직해 있으면서 능 안팎의 손상 여부를 파악해서, 능에 변고가 생겼을 경우 수령이나 감사, 또는 예조에 보고를 해야 한다. 예조에서는 이를 임금에게 아뢰고 조정회의를 거쳐 결정된 내용을 다시 지위체계를 거쳐 능참봉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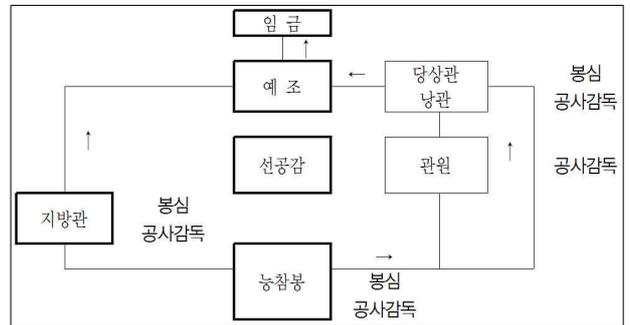


그림 1. 능참봉의 직무체계 (→:보고선)

게 하달되었다. 봉심이나 공사 감독의 경우에도 봉릉 이외에 석물, 곡장, 정자각과 화소안을 봉심하게 되면 본조의 당상관과 낭관이 실시하고, 개수 시에는 선공감에서 관원이 나와 담당하였다. 업무보고나 처리체계는 능력 시 예조와 선공감이 감독하게 되어 있었으나, 실제 지리적 위치 등 여러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규정 외로 능참봉이 이를 대신한 기록이 능참봉 황윤석의 능일기인 頤齋亂藁에도 보여진다. 이는 책임한계에서는 예조의 권한과 책임이었으나, 실제 실무처리에서 능참봉 업무능력의 범위를 시사해 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능참봉은 원칙적으로 2인이 매월 15일씩 교대로 재실에 기거하며 근무하고, 왕릉의 관리와 제례를 주로 담당하였다. 근무가 없을 때에는 대체로 고향집에 내려가 기거하였다. 여기에 관한 기록은 능참봉이 작성한 출근부인 공좌부(公座簿)에 기록되고, 頤齋亂藁에 공좌부의 기록내용이 발견된다(김효경, 2002: 219). 녹봉은 관련 기록을 통해 보면 경국대전에 정월, 4, 7, 10월에 지급되는 사반록제에서 숙종 때 월봉으로 바뀌어 매달 29일에 米 10두, 黃斗 5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능지를 제작하여 관리상의 주요사항을 기록으로 남겼으며, 왕과 왕비의 제례와 능을 살피는 봉심(奉審), 능력 내의 수목관리 및 투작의 감시 등을 담당하였다. 수복과 수호군을 살피는 것도 중요한 역할의 하나였다.

2) 능참봉의 조경관련 임무

(1) 봉심(奉審)

봉심(奉審)은 봉(奉: 받들다)+심(審: 살피다)이라는 의미로 왕릉에서는 능상의 석물이나 사초, 정자각 등을 정기적으로 예찰하는 것을 말하는데, 봉심은 식물의 관리상태 이외에도 건축, 토목 등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과 판단력을 필요로 하는 일로 볼 수 있다. 능관은 매 5일(5일, 15일, 25일)마다 봉심해 이를 예조에 보고하였다. 이 5일 봉심은 능관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관복을 갖추고 정자각에 나아가 안팎과 위아래, 상탁, 옥석을 상세히 살피게 된다. 그 뒤에는 능상 주위를 돌면서 사초와 석물, 곡장 등에 이상이 있는지를 살피고, 그 뒤에는 비각, 수라간, 우물 등을 살피고 청소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봉심의 규정은 1471년의 경국대전과 1764년 속대전에 각각 기록되어 있다(표 2 참조).

(2) 녹지관리

대표적 유교국가인 조선의 조상숭배의식은 건국 초기부터 왕릉에 관심을 기울여 태종이 태조에게 산의 형세를 그린 그림을 바치고 각 능마다 능직과 능수호를 두고 재궁을 건축하는(조선왕조실록, 1392 임신/명 홍무25년 10월 28일) 등 왕릉의 조성 및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기록에 의하면 왕릉에 면적에 대한 능침(陵寢)의 보수법(步數法)을 정하였는데 다음의 기사를 통해 보면

예조에서 아뢰기를, “삼가 역대의 능실을 살펴보니, 후한(後漢) 광무제(光武帝)의 원릉산(原陵山)은 사방이 3백 23보(步)였습니다. 이를 반감(半減)하여 1백 61보로 하면, 사면(四面)이 각각 80보가 됩니다. 금조(今朝) 선대(先代)의 여러 산릉(山陵)의

능실(陵室) 보수(步數)를 원릉(原陵)의 예(例)에 따라 사방 각각 1백 61보로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 12년, 6년(1406 병술/명 영락(永樂) 4년) 11월 1일(정사) 3번째 기사

에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금표를 정하여 능침주변에 녹지를 훼손하는 것을 제한하기도 하였다.

조선왕릉은 왕이 능역공간 수목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순수 식재하면서 식재를 명한 사실, 소나무와 전나무 등과 같은 상록수뿐만 아니라 낙엽활엽수를 식재한 기록도 나오는데, 참나무류 종자를 직접 뿌려 조립하기도 하였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 중 능역공간에 식재를 하교한 최초의 기록이 태종실록에 나타나고 능침에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도록 하였으며, 태종은 창덕궁과 건원릉에 소나무를 심으라는 명을 내리기도 하였다(문화재청, 2010: 97). 위와 같이 넓은 녹지면적을 가지고 있는 조선왕릉의 조경관리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었다. 왕릉은 입지에서부터 풍수적 길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주변을 관리하였으며, 봉분을 구성하고 있는 초지와 주변에 소나무 등의 조림사업 육성에 있어 신성한 공간으로서의 장소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였다.

왕릉의 녹지관리 측면에서 능참봉의 역할은 수목관리, 능력의 관리 및 감독, 능수호군의 관리로 요약될 수 있으며, 상세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① 왕릉의 수목관리

왕릉의 수목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이 대전회통에 능·원·묘의 나무를 불법으로 훼손한 것에 대한 처벌규정⁵⁾으로 증명되고 있다. 참봉으로 하여금 각 능의 수목 현황과 이의 이상 유무를 보고하게 하였으며, 그 책임 또한 엄히 추궁하였다. 실록

표 2. 문헌에 나타난 봉심규정

구분	경국대전 권지 3 예전(1471년)	속대전 권지 3 예전(1746년)
봉심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묘, 산릉, 단, 묘는 매년 예조에서 시조와 같이 봉심하여 상주(上奏)한다.(지방은 관찰사가 왕, 왕비, 왕세자의 태실과 종묘각실, 왕후고비(王后考妣)의 묘소까지 모두 살피봄) • 모든 산릉의 주산맥맥을 박석으로 깔아놓은 곳이 혹은 오래 되어 우수로 훼손되어 패인 곳이 있으면 관찰사가 모두 살피보고 상주함 • 매년 정조제 때에는 현관이 모든 능 위에 잡목잡초의 유무를 봉심하여 상주함 • 매년 한식에 모든 능 위의 봉애(蓬艾)(쑥)와 형극(荊棘)(가시) 등의 잡목 잡초 제거 • 종묘의 옥책, 축책과 고명은 예조의 시조가 매년 1회 봉심 • 역대의 시조 및 고려태조이하 사위(현종, 문종, 충경왕)의 능침은 소재지의 수령이 매년 상견하고 또한 개수하거나 시조를 베는 것을 금함 • 선왕의 실록을 매3년에 춘추관의 당상관이 개심하고 포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능침의 전말(展謁)을 매년 춘추에 예조에서 아뢰(춘절은 2월, 추절이면 8월에 향식을 취품하되 제릉에 편행한 후에는 다만 춘절알만 취품한다) • 각릉에 봉한 능상사초 석물이 탈처(顛處)가 있거나 능상에 실화(失火)가 있는 곳이면 정부(현임의 정)이 사고가 있으면 전임의정(정)이 진거한다)와 예조의 당상관 또는 낭관 관상감과 선공감의 시조(관상감의 시조가 사고가 있으면 예조의 당상관이 겸진하고 선공감의 시조가 사고가 있으면 공조의 당상관이 대신한다) 선공감의 관원 상지관 또는 화원이 진거하여 봉심함 • 대릉외의 계체 석물, 곡장, 정자각 또는 화진내에 진화치를 봉심하는 경우에는 다만 예조의 당상관 낭관이 진거함. 수개시에는 선공감의 관원이 함께 진거함 • 함경도의 각릉 및 단종 장릉은 5년에 1차씩 예조의 당상관이 진거하여 봉심하되, 봉릉의 변경할 때에는 정부가 예조의 당상관과 더불어 진거한다. 사조를 고칠 때에는 다만 예조의 당상관과 낭관이 감독함 • 각릉상의 사초가 요우담극(큰 비로 틈이 벌어진 곳)이 있는 곳이면 능관이 예조에 보고하고, 예조는 계품하여 의정의 파유하여 봉심하고, 개수함(능관이 보래하면 예조에서 급속히 각사에 지위하여 모든 유택의 등속(等屬)(관련 기물)을 그 즉시 진배하고 능관이 먼저 덮어두고 의정의 봉심을 대기하여야 함) • 각릉을 수개할 때에는 각사의 잡물을 능소에 진배하는 경우에는 20일을 한도로 하고, 그 중에 개역할 경우에는 10일을 한도로 함(수개할 때에는 감역, 참봉, 화원의 성명 및 수리한 곳을 장부에 기록하고, 4년 내에 수개한 것이 훼손되는 경우에는 당해 관원을 파면함) • 각릉의 화소에 대해서는 해자의 외변으로써 한도로 한다.(화제의 경내에는 범죄하는 것을 금지) • 각릉에 왕의 행행하는 어로를 범접한 자는 적발하면 장1백에 처함

에 의하면 천재지변이나 부당취득을 목적으로 한 녹지훼손에 대한 보고와 이에 대한 논의가 자주 보이는데, 능참봉은 산림부 산물을 땔감 등으로 처리하는 고유권한이 암묵적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비리에 연루되는 일도 많았다. 능참봉의 왕릉수목관리에 관한 기록은 벌목꾼이 능수에 함부로 들어가 수목을 베는 것을 방지하는 것과 화소(火巢) 내 수목관리, 제조작업, 장마 시 붕괴 등으로 인한 사초관리 등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 관에 보고한 적간내용을 보면 능참봉의 수목관리에 관한 동정내용이 드러나고 있다(원문참조).

장릉 참봉(章陵參奉) 김승구(金昇九)의 보고와 관련하여 본원의 주사(主事)를 파견하여 능의 나무를 불법으로 찍은 문제를 적간한 결과 “능의 오른쪽 산중턱이 패여서 센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가 쉽사리 뽑히는데 현재 넘어진 중소(中小) 소나무가 총 46그루, 전나무가 17그루이고 썩거나 부러진 것은 이미 화목(火木)으로 찍어 쓰고 남은 것이 없습니다.” 고종 42권, 39년(1902 임인/대한 광무(光武) 6년) 9월 11일(양력) 1번째 기사

관리소홀에 대해서 능참봉에게도 그 책임을 물었다(원문참조).

죄의정 심정이 의논드리기를, “원(園)이나 능(陵)의 수목을 도벌(盜伐)한데 대한 율문(律文)이 가벼운 것이 아니니, 반드시 추열(推閱)하여 죄를 확정시킴으로써 후세 사람들을 징계시켜야 하고 가볍게 버려두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선왕의 능침(陵寢) 수호인이 자기가 범한 것도 아닌 죄로 여러 번 형신을 받다가 죽기라도 한다면 실로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중종실록』 66권, 중종 24년(1529 기축/명 가정(嘉靖) 8년) 10월 26일(무자)

때로는 부패한 능참봉에 의해서 수목도벌이 자행되기도 했는데 이는 더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원문참조).

사간원(司諫院)에서 아뢰기를,

“전 참봉(參奉) 이삼달(李三達)이, 역적 윤희의 문도로 윤희를 도와서 나쁜 짓을 하였으며, 그 세력을 빙자하여 평민으로 벼슬길에 나가 일찍이 헌릉 참봉(獻陵參奉)이 되었는데, 능 내의 소나무를 제 마음대로 베어내어 수호군(守護軍)을 동원하여 그의 집으로 운반해 선박을 만들었습니다. 끌고 발두령을 지날 때에 발주인이 금지시키니, 발주인을 재실로 피어내 온갖 방법으로 꾸짖고 욕을 보이니, 능 밑에 사는 백성들이 지금도 분개하며 욕하고 있습니다. 잡아다가 죄주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숙종실록 9권, 6년(1680 경신/청 강희(康熙) 19년) 7월 5일(임진) 2번째 기사

諫院啓曰: “前參奉李三達以賊黨之門徒, 助鑄爲惡, 憑藉其勢, 自身入仕. 曾爲獻陵參奉, 陵內松木恣意斫伐, 調發守護軍, 運致其家, 以造船隻, 曳過田疇之時, 爲田主所禁, 則誘致田主於齋室, 詆辱萬端. 陵底居民, 至今憤罵. 請拿問定罪.” 從之.

나무가 고사(枯死)할 경우 그 나무의 크기와 수량에 따라서 정배(定配), 파직(罷職) 등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능수호군을 통해 제조작업을 한 기록은 능참봉 황윤석의 일기에 二十四日 除草 陵上次 傳令三面守護軍(頤齋亂藁 권8, 1767년 5월 22일, 729 쪽)이라 적고 있다. 화소 내에 소나무의 병충해 관리를 능참봉에게 명하는 내용도 보여진다(원문참조).

강릉(康陵)의 화소(火巢) 안쪽에 있는 소나무가 해마다 병충해를 입는 것이 거의 3분의 2나 된다고 하니, 능관에게 각별히 엄하게 신칙하여 마음을 다해서 감독하여 수습하게 하되, 능군(陵軍)의 수가 적어서 일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보고하도록 하여 이유를 갖추어 초기하라. 『일성록』 정조10년 병오(1786, 건륭 51) 3월 9일(계축)

장마 시 붕괴된 사초관리에 관해서는 대전회통에 나타난 내용을 정리하면 각 능위의 잔디가 만약 장마비로 갈라터진 곳이 있으면 능참봉이 예조에 보고하고, 예조에서는 임금에게 품의하여 의정을 보내서 봉심하여 개수하게 한다. 능관이 보고하면 예조에서는 이를 각사에 급히 통지하여서 무릇 두꺼운 기름종이 등을 출근 시에 바치도록 하고, 능관은 먼저 기름종이로 덮어서 의정의 봉심을 기다린다, 각 능의 벌레 먹은 나무에 대해서는 보고하기를 기다려 예조 낭관을 보내서 함께 그것을 조사하여 벨 것을 허락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한 능참봉의 보고를 보면

“방금 수릉 참봉(綏陵參奉) 이기중(李耆鍾)의 보고를 보니, ‘어제 폭우가 쏟아져 본릉(本陵) 능 위의 술방(戍方)에서 해방(亥方)까지의 사초(莎草)가 내려앉았습니다.’ 하였습니다. 능 위의 사초가 내려앉은 변고는 매우 놀랍고 두려운 일인 만큼, 위안제(慰安祭)를 택일하지 말고 음력 5월 26일에 설행하며 수개(修改)하는 절차는 전례대로 의정부(議政府) 관원 이하가 가서 봉심한 후 품처(稟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아뢴 대로 하라.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장례원 경(掌禮院卿), 영선사장(營繕司長)이 가도록 하라.” 하였다. 고종 39권, 36년(1899 기해/대한 광무(光武) 3년) 7월 1일(양력) 2번째 기사

때로는 왕릉을 스스로 보수하여 상을 받았던 참봉을 파직시킨 일도 있었다.

정언(正言) 이수징(李壽徵)이 진계(陳啓)하여, 정릉 참봉(貞陵參奉)에게 내릴 상전(賞典)을 품처(稟處)하라고 한 명을 중지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 이에 앞서 정릉의 내맥(來脈)에 무너진 곳이 있는 것을 흉년으로 인해서 미처 보수를 못하였는데, 참봉 안중현(安重鉉)이 사사로이 노력하여 날마다 기워 쌓아서 잔디를 입히고 어린 소나무를 심었으므로, 예조 판서 민암(閔

黜과 오시수(吳始壽)가 번갈아 포상할 것을 청하여, 마침내 품처를 명하였다. (중략) 뒤에 윤희가 극력 진달하여 참봉은 잡아다 극문하고 예관(禮官)도 죄를 주어야 된다고 하였으며, 이어 대각(臺閣)을 지척하니, 임금이 참봉은 파직시키고 예관은 추고(推考)하였으며(후략). 숙종 8권, 5년(1679 기미/청 강희(康熙) 18년) 10월 1일(임술) 3번째 기사

② 능역의 관리 및 감독

조선왕릉의 관리는 능침을 둘러싸고 있는 능역의 사초지와 주변 수림을 포함하고 있는데, 왕릉의 능역은 화소와 해자를 두어 경계를 표시했으며, 그 안에 있는 능의 상설제도와 제반시설물, 수목 등에 대하여 관리하였으므로 화소 내부를 관리 능력으로 볼 수 있다(조운연, 2008: 56). 능역의 관리는 능참봉의 주요한 직무 중에 하나였다. 왕릉의 화소 관리 중요성에 대해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는 다음과 같이 죄를 엄중히 다스리고 있다(원문참조).

전 함경남도 관찰사(前咸鏡南道觀察使) 서정순(徐正淳)을 감봉(減俸)하라고 명하였다. 덕안릉(德安陵)의 화소(火巢) 내에 화재가 일어난 변고가 있었는데, 즉시 보고하지 않은 까닭에 장례원(掌禮院)에서 제품(啓稟)하였기 때문이다. 고종 37권, 35년(1898 무술/대한 광무(光武) 2년) 7월 3일(양력) 2번째 기사

또한 화소(火巢)안에 묘를 장사지낸 것에 대하여는

“홍릉(洪陵)의 해자(核字) 안에 몰래 무덤을 쓴 죄인인 피고 황일봉(黃日奉)은 능침의 화소(火巢) 밖 안산(案山)의 금표(禁標) 안에 남몰래 장사지낸 자는 사형에서 등급을 낮추어 정배(定配)한다는 조율(照律)하고, 피고 정용서(鄭用瑞)는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이 발각된 후 잡아다 보고하지 않은 자는 죄인의 죄에서 한 등급을 감한다는 것으로 조율하여 유배를 징역으로 바꾸어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고종 39권, 36년(1899 기해/대한 광무(光武) 3년) 8월 16일(양력) 1번째 기사

실록에 보면 능참봉의 화소안의 화재진화에 관한 임무수행 기록도 보여진다(원문참조).

경릉 참봉이 방금 올린 첩정에 ‘야화(野火)가 동편 박석 고개(朴石古介)에서 화소 안에까지 번져 타들어오고 있으므로 두 능의 참봉이 하인 및 근처에 사는 백성들을 많이 데리고 가서 진화하였으나 바람까지 불어 제때에 진화할 수 없어서 능소(陵所)에까지 이를 지경에 있다.’ 하였으니, 매우 경악스럽습니다. 본조의 낭청과 병조의 낭청에 말을 지급하여 도장(都將)과 금군(禁軍)을 거느리고 가게 하되 많은 군인을 배정하여 시급히 진화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선조실록』 123권, 선조 33년(1600 경자/명 만력(萬曆) 28년) 3월 1일(갑진)



그림 2. 순종 유릉 공사모습 (자료: 문화재청)



그림 3. 1922년 12월 13일 조선일보 기사

능참봉은 능의 관리 및 능 개수를 위한 능역을 감독하기도 하였는데 주요 능역으로는 능의 莎土 수축, 정자각·비각 개수, 석물 개수, 곡장 개축, 병풍석 수리 등이다. 특히 사토수축이 가장 큰 능력에 해당한다(김효경, 2002: 225).

정자각이나 비각을 개수하고 丁字閣 以今月十九—改修(顯齋亂藁 권7, 1766년 8월 3일, 610쪽), 사토를 수축하는 등의 큰 공사가 생기면 능역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는데 예조의 당상관이나 낭관이 있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능참봉의 역할이 중요하였다.

광릉의 분묘를 넓히고 황토를 쌓아 무너지지 않게 하다. 성종 94권, 9년(1478 무술/명 성화(成化) 14년) 7월 26일(을유)

『일성록』 정조2년 무술(1778, 건륭 43)에 보면 신의왕후의 제릉에 대해 능참봉이 보수를 요청한 기록이 나타나 있다.

제릉 참봉(齊陵參奉)의 보고를 보니, 본릉 능 위의 곡장이 측방(丑方)부터 갑방(甲方)까지 14척 5촌(寸)이 중대석(中臺石), 지대석(地臺石)과 함께 무너졌고, 능 위에 있는 석물(石物)의 석회

를 바른 부분이 간간이 떨어져 나갔고, 정자각(丁字閣) 월대(月臺)의 앞쪽 대석(臺石)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위안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달 15일에 설행하고, 본조의 당상과 낭청이 나가서 봉심한 뒤 품쳐하겠습니다.”

『능표석영건청의궤(陵表石營建廳儀軌)』, 1752년(영조 29) 33페이지 계유 2월 초4일 당상공조참판 심성진 태릉 강릉 비각기 봉심서에 보면 기존 조성된 능에 표석(비)을 추가할 때 능참봉이 어느 위치에 비석을 둘지 보고하기도 하였다. 또한 일제 강점기에는 고종 흥릉의 참봉 고영근(高永根)이 흥릉 비석에 ‘대한’자를 넣은 사건이 신문에 보도되기도 하였다(그림 3 참조).

③ 능수호군 관리

왕릉은 주로 민가와 떨어져 있고, 능 주변에 산림이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능 관리 인력이 필요하였는데, 이를 능수호군이 담당하였다. 능참봉은 이 능수호군의 관리 책임을 맡고 있었다. 능수호군의 선발은 주로 능 주변의 고을에서 충당했음이 아래 실록에 나타나고 있다.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창릉(昌陵)의 수호군(守護軍) 70호(戶)는 광릉(光陵)의 예(例)에 의거하여, 능(陵)에 가까운 경기 여러 고을의 부실(富實) 한역(閑役)한 사람을 골라서 뽑아 정하고, 이것이 부족(不足)하면 정병(正兵)으로써 채워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 1권, 즉위년(1469) 기축 / 명 성화(成化) 5년 12월 27일(병자) 2번째 기사

수호군의 규모는 수십에서 수 백 명에 달하기도 하였으나, 능참봉 일기에서 장릉의 수호군은 90명 규모로 나타나고 있다(원문참조).

“點考守護軍保九十名”. (『頤齋亂藁』第2冊, 권9, 1976년 10월 19일, 27쪽)

수호군의 역할은 화소역의 화재예방 활동이 아래 기록들에 나타난다.

傳令于七面主人以廿六日 領將率守護軍來到 以爲火巢次”(『頤齋亂藁』第一冊, 권8, 1967년 3월 20일, 699쪽)

“更促傳令於各面守護軍 以明日爲火巢役”(『頤齋亂藁』第一冊, 권8, 1967년 3월 26일, 703쪽)

“是日 火巢軍盡到點考 守護軍及本山山直 自陵西南禁標外始役 天暖無風 散燒無夏 可幸矣”(『頤齋亂藁』第一冊, 권8, 1967년 3월 27일, 704쪽)

아래 기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능 주변의 제초작업도 수호군의 직무였다.

“命點考守護軍 除草于陵上 殿庭典祀廳 此舊例也”(『頤齋亂藁』 권8, 1767년 7월 30일, 730쪽)

“是日令守護軍 就陵上殿庭各廳齋舍 除草”(『頤齋亂藁』 권8, 1767년 3월 20일, 699쪽)

능 주변의 또한 벌목금지 예찰을 수행하는 등 수호군은 조선 왕릉의 녹지관리 인력으로 역할을 담당하였다. 능참봉은 수호군의 업무수행을 관리하거나 이들을 직접 이끌고 작업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수호군 운영과 관련하여 전란이후 민생고 해결방안을 건의하는 실록 기록도 찾아볼 수 있다(원문참조).

“난후(亂後)에 각릉(各陵)의 수호군(守護軍)으로서 남아 있던 자가 자못 많았는데 초봄에 곧바로 먹고 살 길을 조처해 주지 않아서 지금에 와서는 거의 다 사망하였습니다. 요즘 들건대 각릉의 참봉(參奉)이 절일(節日)의 대제(大祭) 때마다 나가는데 기락할 곳이 없고, (중략) 각릉에 기름진 전답(田畝)이 매우 많으니 (중략) 참봉(參奉)에게 나누어 주고 수호군과 근처의 유민(流民)들을 불러 타일러서 (중략)정작하여 개간하게 한다면, 굶주린 백성들이 스스로 와서 부락을 이루고 살 것이므로 능침을 수호할 수 있는 길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선조 51권, 27년(1594) 갑오/명 만력(萬曆) 22년 5월 30일(정미) 3번째 기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왕릉은 능역관리에 대한 엄중한 규정과 능참봉이라는 종9품 직책을 통한 직무수행을 통해 관리되어 오늘에 보존되어 왔으며, 풍수를 고려한 입지와 성역공간의 특수성을 활용한 녹지공간 조성과 조림사업은 오늘날 조선왕릉의 세계 유산적 가치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IV. 결론

본 연구는 조선왕릉의 제례와 녹지관리를 담당한 국가 최하위직인 능참봉직에 대한 조경사적 의의 분석을 위하여 조선왕조실록을 근간으로 고문헌을 분석을 통해 능참봉에 관한 기록상의 직위와 임용조건, 직무체계, 조경관련 직무를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능참봉은 종9품 참봉(參奉) 2인으로 구성되고, 능참봉직은 생원·진사 혹은 유학 중에 삼망(三望)을 거쳐 임명이 되는 음직으로 임용기준은 ‘연소하지 않고 경륜이 있는 자’를 선발하였으며 왕릉수호의 상징성으로 인해 관직진출의 수단이 되

었고, 후에는 세력가들의 세습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1471년에는 종9품 각 참봉 2원씩 배치하였다가 숙종32년(1706년)에 와서 1인으로 축소되었다가 영조1년(1725년)에는 참봉을 직장(直長, 종7품)으로 품계를 높이고, 영조12년(1736년)에는 다시 령(令)으로 승급시킨다. 1746년에는 능관리자 2명 중 1명은 종5품 령(令), 종7품 직장(直長), 종8품 별검(別檢) 등으로 교체하며 임명할 수 있었다.

둘째, 능참봉의 업무체계는 품계서열을 따랐으나, 현장에 배치된 최일선의 실무자로서 제례와 왕릉관리에 있어 암묵적으로 일임된 권한을 가졌으며, 이는 지방관과의 수직적인 관계의 유동성과 산림부산물 처리 권한, 봉심과 능의 공사감독 수행 등 실제보다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능지작성 등 조선왕릉 관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근무형태는 원칙적으로 2인이 매월 15일씩 교대로 재실에 기거하며 근무하고, 녹봉은 매달 29일에 米 10두, 黃斗 5두를 받은 것으로 기록에 나타난다.

셋째, 능참봉의 조경관련 직무 중 봉심은 능상의 석물이나 사초, 정자각 등을 정기적으로 예찰하여 예조에 보고하는 것이며, 능관은 매 5일(5일, 15일, 25일)마다 봉심해 이를 예조에 보고하였으며, 경국대전(1471)과 속대전(1764)에 봉심의 체계와 방법 등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었다.

넷째, 능참봉의 조경관련 직무 중 녹지관리는 수목관리 및 능역의 관리 및 감독, 능수호군의 관리로 구분되며, 수목관리는 대전회통에 처벌규정이 명기되어 있었으며, 능역은 화소 내부의 화재와 능의 沙土 수축, 정자각·비각 개수, 석물 개수, 곡장 개축, 병풍석 수리 등을 주로 감독하였으며, 능수호군을 지휘하여 화소역, 제조작업, 벌목금지 예찰 등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임무는 조경식물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관리능력과 건축·토목을 망라한 공간에 대한 다양한 식견이 요구되는 직무로 오늘날 조경가의 직무성향과 관련성이 높다.

능참봉의 조선시대 조경관련 직무에 대한 좀 더 폭넓은 문헌 발굴 및 고증으로 조선시대 능참봉의 조선왕릉 조경관리자로서의 역할과 능참봉과 조선왕릉의 조경사적 가치 규명을 위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주 1) 그동안 조경분야는 1970년대에 태동된 그리 길지 않은 역사를 지니고 있다. 1980~90년대에 한국전통조경에 대한 인식을 넓혀오다 오늘날, 조선왕릉의 종합정비계획을 전통조경연구자가 총괄하는 전문성과 사회적 인식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까지 이르렀다. 이는 1970~80년대 몇몇 선도적 연구자들의 헌신과 1996년부터 시작된 학회 차원의 조경역사서 발간, 다양한 전통조경연구분야의 학술적 성과가 준 파급효과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역사에서 발굴한 전통조경에 관한 심층적 자료축적은 아직 미진한 수준이다. 전통조경에 대한 학제간 연계를 통한 소재 발굴 및 이에 대한 조경학 차원의 연구 성과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주 2) 관상감·군기시·군자감·내의원·돈녕부·봉상시·사역원·사용원·사제감·사직서·선공감·소격서·예빈시·오부·전생서·전연사·전옥서·전의감·제용감·중전부·혜민서·활인서·각릉(各陵)·각원(各園)·각전(各殿) 등에 소속되어 있었다.

주 3) 수릉관은 3년상을 왕이 직접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종실(宗室)에서 대신 3년간 시묘(侍墓)를 사는 것이다.

주 4) 조선왕릉의 인근에 왕과 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재를 지내는 사찰로 원찰(願刹), 능사(陵寺), 조포사(造泡寺)라고도 하였다.

주 5) 능·원·묘의 나무를 불법으로 베는 데도 적발하지 못하면 불법으로 베 사람 및 능관을 경중으로 나누어 논죄한다. 아름드리 대목 1주가 도벌되었으나 적발하지 못하면 능관을 도(徒) 3년에 처하고, 능관은 유(流) 2000이(里)에 처하며, 2주 이상이 되면 차례로 형의 등급을 더하여 유(流) 3000이(里)에 그치도록 한다. 송대목과 잡대목이 1주 이상 되면 능관은 장 100에 처하고, 4주 이상이면 도(徒) 2년에 처하며, 7주 이상이면 관계를 3등급 강등하며, 10주 이상이면 능관은 유(流) 3000이(里) 능관은 도(徒) 3년에 처한다. 죽목이 10주 이하되면 능관은 장(杖) 80, 10주 이상이면 장 100, 20주 이상이면 도(徒) 1년, 30주 이상이면 도(徒) 2년에 처한다. 능관은 50주 이상이면 탈고신(奪告身) 3등(等), 30주 이상이면 파직한다. 소목이 10주 이상 도벌되면 능관은 태(苔) 40, 20주 이상이면 장(杖) 60에 처한다. 그러나 도벌자를 적발하여 형조에 보고하면 논죄하지 아니하고 반년 능에 속한자 자신이 도벌하는 경우에는 대명률에 의하여 형을 3등급 가중한다(대전회통).

인용문헌

1. 김경숙(2005). 18세기 陵參奉 金斗璧의 관직생활과 王陵守護, 규장각, Vol. 28.
2. 김규연, 정기호, 최종희(2011). 조선시대 신로, 어로 형식에 관한 연구 : 비정형 신로, 어로를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9(1): 38-49.
3. 김양호(2010). 명승 전문가 워크숍 개최를 위한 자문회의록(미발표). 문화재청.
4. 김영모, 이선(2004). 고증을 토대로 한 서오릉 능역시설의 정비방안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2(1): 70-87.
5. 김진태(2009). 풍수론적 해석을 통한 조선왕릉 문화에 대한 연구 : 서오릉 입지 사례를 중심으로. 서경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김효경(2002). 『頤齊亂黨』를 통해 본 조선후기 사회사 : 조선후기 능참봉에 관한 연구 : 『頤齊亂黨』장릉참봉 자료를 중심으로. 古文書研究. 20: 217-225.
7. 김철완(2009). 조선왕릉에 관한 풍수연구 : 좌향론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김흥년, 심우경, 최종희(2007). 홍유릉 일원의 입지와 공간구성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5(3): 92-104.
9. 김흥년(2009). 조선왕릉 연지의 입지 및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 대한민국(2007). 조선왕릉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11. 목을수(1988). 고려, 조선능지. 서울: 문성당.
12. 문화재청(2006). 한 권의 수첩 핸드북으로 만나는 조선왕릉. 문화재청.
13. 문화재청(2009). 태릉·강릉 능제복원 기본계획 연구. 문화재청 보고서.
14. 문화재청(2009). 서삼릉 능제복원 기본계획 연구. 문화재청 보고서.
15. 문화재청(2009). 파주 장릉 능제복원 기본계획 연구. 문화재청 보고서.
16. 문화재청(2009). 서오릉 능제복원 기본계획 연구. 문화재청 보고서.
17. 문화재청(2009). 선릉·정릉(貞陵, 신덕왕후) 능제복원 기본계획 연구. 문화재청 보고서.
18. 문화재청(2009). 파주삼릉 능제복원 기본계획 연구. 문화재청 보고서.
19. 문화재청(2009). 용릉·건릉 능제복원 기본계획 연구. 문화재청 보고서.
20. 문화재청(2009). 은릉 능제복원 기본계획 연구. 문화재청 보고서.
21. 문화재청(2009). 조선왕릉 경관포인트 선정 및 문화컨텐츠 마련 연구 보고서. 문화재청 보고서.
22. 문화재청, ICOMOS 한국위원회(2010). 조선왕릉 능제복원 기본계획 연구. 문화재청 보고서.
23. 박동식, 엄대진, 표기만, 이한영, 최종희(2008). 태·강릉 일원의 입지와 공간구성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6(2): 61-69.
24. 신광철(2005). 조선시대 왕릉의 석인·석수 조형성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5. 신현실, 이원호, 전나나(2011). 조선시대 능참봉의 조경사적 역할. 한국전통조경학회 2011년도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논문발표회 초록집. pp.117-121.
26. 심우경, 김송아, 류경민, 최종희(2007). 용건릉 일원의 입지와 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5(4): 65-75.
27. 양란 저, 장인성·임대희 역(2005). 중국역대 능침제도. 서울: 서경.

28. 이병유(2008). 왕에게 가다. 서울: (주)지오마케팅.
29. 이선, 김영모(2004). 조선시대 능역 공간의 식생 및 관리 사실에 관한 연구: 서오릉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2(1): 88-101.
30. 이영(1992). 조선시대 왕릉 능역의 건축과 배치형식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1. 이원호, 신현실, 전나나(2010). 능참봉 관련 기록을 통해본 조선왕릉의 녹지관리 정책. 한국환경과학회 2010 정기학술발표회 논문집. 19권.
32. 이재영(2010). 조선왕릉의 풍수지리적 해석과 계량적 분석 연구. 동방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3. 이창환(1999). 조선시대 능역의 입지와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4. 이창환, 이상필, 정종수, 전해원, 김규연, 최중희(2009). 조선왕릉의 능제 복원 연구: 태릉·강릉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7(2): 59-71.
35. 이창환, 정종수, 이원호, 최중희(2010). 조선왕릉의 능제복원 연구 : 김포 장릉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8(2): 86-97.
36. 이창환, 정종수, 이원호, 최중희(2010). 조선왕릉의 능제복원 연구 : 용릉·건릉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8(3): 39-52.
37. 엄지혜(2008). 조선시대 왕릉 재실의 배치 및 평면형식의 시대적 변화.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8. 임병을, 심우경, 최중희(2009). 김포 장릉 주변지역의 현상변경 실태 및 경관가시성을 고려한 경관보존·관리방안.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7(3): 18-29.
39. 은광준(2010). 조선왕릉 식물복식: 세계문화유산. 서울: 민속원.
40. 전나나(2009). 조선왕릉 석인상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1. 전영옥(2003). 조선시대 도시조경론. 서울: 일지사.
42. 정수환(2008). 조선후기 능참봉의 경제생활의 실제 : 18세기 황윤석의 顯齋亂蕪를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18권.
43. 조송래(2006). 조선왕릉 금친교에 관한 연구. 우송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4. 조운연(2009). 조선왕릉의 능역 복원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45. 최중희, 김규연, 김홍년(2008). 홍유릉의 현상변경 실태 및 경관가시성·토지이용을 고려한 경관보존·관리방안.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6(3): 24-40.
46. <http://100.naver.com/네이버백과사전>.
47. <http://royaltombs.cha.go.kr/>(문화재청 조선왕릉전시관).
48. <http://sillok.history.go.kr/>(조선왕조실록).
49. <http://www.chosun.com/>(조선일보).
50. <http://www.itkc.or.kr>
51. [http://www.history.go.kr/1922년 12월 13일 조선일보 기사](http://www.history.go.kr/1922년_12월_13일_조선일보_기사)
52. 경국대전 권지1(1471).
53. 속대전 권지 1(1746).
54. 대전회통(보경문화사 2007발행본)
55. 일성록(한국학술정보 2008발행본)
56. 顯齋亂蕪

원고접수: 2011년 5월 15일

최종수정본 접수: 2011년 6월 14일

2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